

선진적 도시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안동수
영등포구청 재정경제국장
adss5401@ydp.go.kr

영등포구 현황

- 서울의 남서쪽 한강 남단에 위치한 영등포구의 인구는 404,914명(2010.3월 기준), 지역면적은 24.56km²(준공업지역:5.48km²)이고 안양천, 도림천, 대방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대부분 완만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한제국 말기 신식 교통수단인 철도가 운행됨에 따라 영등포지역이 서울 서남권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교통·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 1899년 경인선과 1904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는 시기부터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맥주·피혁·방직·주정 등 급속한 공업발전으로 인구증가와 주거환경이 조성되었으나, 지역특성상 택지개발 등에 의한 대폭적인 인구증가의 요인은 없었다.
- 1968년부터 시작된 여의도개발사업으로 국회의사당 및 대규모 시범아파트단지, KBS·MBC 등 방송국, 세무서, 전화국 등 국가주요기관 및 전경련회관, 증권타운 등이 들어서고 정치·경제·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지역적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지역개발의 필요성

- 서울 서남권지역의 중심지인 영등포구는 1904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어 교통 및 물류의 중심지가 되면서, 국가 주요 경제·산업기반시설의 조성과 거주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형성된 구시가지의 모습이 최근까지 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여건으로 볼 때도 영등포구가 수도서울의 정치·경제·문화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낙후로 인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혁신적 수준의 도시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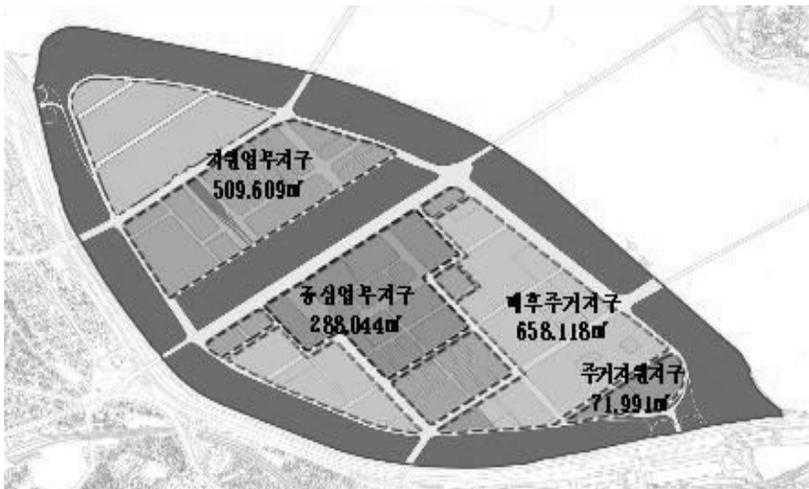
선진적 도시계획 입안

- 서울시 서남부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이자 시발점인 여의도지역이 국제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서, 국제금융 산업의 배후적 경제권역의 역할 확대에 따라 영등포·문래·양평동 지역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경제벨트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따라서 여의도 금융중심지에서 시작하고 영등포부도심지역을 거쳐 문래·양평지역과 연결되는 영등포의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도시개발 마스터플랜은 친환경, 문화·관광형, 무장애, 찾고 싶은 행복도시의 개념에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가미된 선진적 도시계획의 입안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계획을 통한 경제활성화 벨트 구축

- 미래 영등포지역의 경제는 여의도지역의 자산분야 「금융산업」, 영등포역·타임스퀘어·영등포 뉴타운이 단일상권으로 연결되는 대규모 「유통산업」, 문래·양평 준공업지역의 「녹색성장산업」이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
- 현재 여의도지역은 우리나라의 주요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이 밀집되어 주식·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자산분야」 금융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동북아 금융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을 위하여 국회를 제외한 전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였다.
- 「여의도 금융중심지」 지정현황
 - 지정시기 : 2010. 1. 21 (금융위원회)
 - 지정면적 : 3,976,788㎡ (국회제외 여의도 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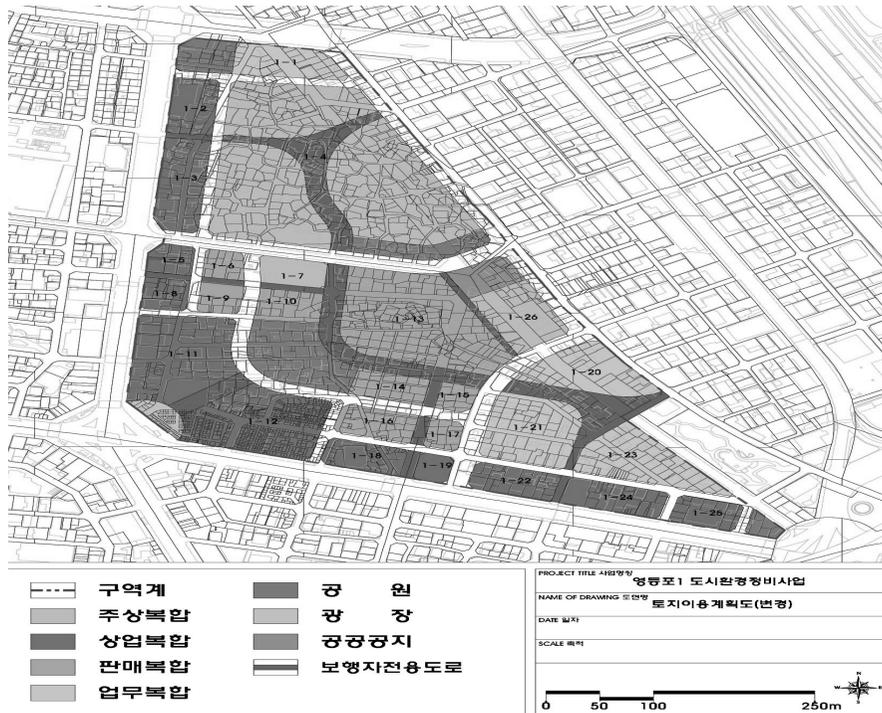


[그림 1] 여의도 금융중심지 지정현황

- 「여의도 금융중심지」 지정효과는 동북아를 대표하는 국제 금융중심지로서 기반 구축과 국제도시 환경조성을 통한 외국자본의 유치로 국가·지역경제 발전의 견인과 영등포 지역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 여의도와 가장 인접한 영등포동의 「영등포뉴타운사업」 지역은 노후 기성 시가지로 방치되어 영등포중심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 이 지역의 기능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촉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도심으로 육성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 지정 개요

- 지정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대
- 지구 면적 : 226,043.6㎡



[그림 2] 「토지이용계획도 (영등포뉴타운사업 지역)」

자료 : 영등포

○ 영등포지역 교통의 요지인 영등포역 주변일대의 대규모 「유통산업」 시설인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과 동일 상권으로 연계시켜 여의도가 「동북아금융허브」로 정착될 경우 최적의 배후지 역할로 현재 「사도 광역 상권」에서 「전국적 상권」으로 상권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 문래·양평지역은 시범적 산업개발 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녹색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남권 르네상스 정책사업」(서남권 R&D콤플렉스 및 공공산업시프트)을 유치할 예정이다.

- 추진예정 시기는 문래지역이 2011년도, 양평지역은 2015년도이며 현재의 산업구조의 전환은 2020년도로 서남권 중심도시로 성장이 목표이다.
- 「녹색성장산업」의 기반조성이 이루어질 경우 준공업지역이 가지고 있는 ‘슬럼’, ‘낙후’ 이미지 개선과 함께 신성장 동력사업,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지역 개발로 여의도, 영등포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벨트로 조성된다.

주요 추진사항

-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중심업무지구」를 금융산업 개발진흥지구(면적:387,469㎡)로 지정하고, 지구 내 개발 시 세제감면, 용적률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금융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 여의도동 22~23번지 일대에 금융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파크윈(연면적:627,674㎡), 과 서울국제금융센터(연면적:507,274㎡)가 건립중이고, 한강공원 일대를 자연형 호안 및 수변산책로, 친수형 테라스 등을 조성하는 「여의도한강특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하여 금융전문가를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그림 3] 여의도 국제금융·수변도시재생을 위한 심포지엄

- 영등포역세권, 타임스퀘어, 영등포뉴타운을 연결하는 단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영등포로타리저하도 공사가 2011년에 준공·개통 예정이다.

영등포구의 미래발전상

- 국가적으로 취약한 금융산업분야의 「특화육성」을 추진하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면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계획」과 함께 개발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여의도지역은 금융선진국(런던,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수준에 비견되는 도시개발과 금융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배후지역인 영등포동 지역은 금융클러스터(Clester)산업의 정착과 함께 전국적 규모의 유통산업 부흥기로 연결된다.
- 서울시의 서남권 종합개발비전인 「서남권 르네상스계획」의 시행은 영등포구의 낙후지역인 경부선철도 주변 신길·도림·대림동 지역의 도시환경을 대폭 개선시키고, IT 관련 산업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들의 유치로 이어진다.
- 경부선철도와 경인로 주변지역이 양평·문래지역의 「녹색성장산업」과 지역적·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대규모 「영등포벤처벨리타운」으로 조성되면 여의도를 시점으로한 산업경제벨트의 완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많은 일자리창출과 함께 「친환경행복도시영등포」의 새로운 위상이 정립될 것이다.